

길거리 내몰린 흡연자때문에... 인근 상가·주택 고통 '하소연'

“제발 여기서 담배 피우지 말아주세요.”

지난 13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 메가박스 영화관 옆 골목에서는 흡연을 자제해 달라는 커다란 음성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흡연자 5명이 일제히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너비 3m에 불과한 골목길이 연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따뜻한 경고 음성을 들은 흡연자들이 마지못해 발걸음을 옮겼지만 길바닥은 이들이 버린 담배꽂초 수십개와 곳곳에 떨어진 찌꺼기로 더럽혀져 있었다.

스피커를 설치한 인근 식당 관계자는 “사람들이 식당 앞 골목길에서 담배를 자주 피워 지난해 9월 금연촉구용 스피커를 설치해 방송하고 있다”며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금연구역이 아니라 단속을 못한다는 답변을 들어 궁여지책으로 스피커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상가·학원 등이 몰려 있는 광주시 북구 전남대학교 후문 인근 2층 주택에 거주하는 A(45)씨도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인근 당구장 손님들이 골목에서 피우는 담배연기가 A씨의 집으로 넘어오기 때문이다.

A씨는 “법규 때문에 당구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흡연자들이 집 앞 골목길로 모여드는 것 같다”며 “흡연자들에게 항의하고 있지만 그때 뿐이어서 이사가길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내금연 확대로 '풍선효과'
골목길 꽂초·쓰레기 뒤범벅
“여기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스피커 설치하고 경고 방송**

**광주 금연구역 4만4084곳
실외 흡연시설은 거의 없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금연구역이 확대돼 인근 주택·상가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담배 연기로 인해 주민간 다툼이 일어나거나 흡연자와 다투고 잇따라하고 있다.

금연구역 확대 정책으로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광주지역 실외 흡연시설은 2곳 뿐이다.

14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광주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4만 4084곳(동구 4114곳·서구 8908곳·남구 6311곳·북구 1만1506곳·광산구 1만3245곳)이다.

지난해 12월3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며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1697곳이 새롭게 추가됐다. 당구장 등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3월부터 각 지자체가 흡연 단속·점검에 들어갔다.

갈 곳 없는 흡연자들은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등 담배값에 붙는 세금(52.3%)에 비해 길거리 흡연시설이 턱 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 금연구역에 비해 광주거리 흡연시설은 광주시 남구청 별관 민원실 옆 1곳과 광주대학교 교내 1곳 등 모두 2곳 뿐이다.

금연구역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실외 흡연시설 마련에는 소극적이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실외 흡연시설 조성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금연 정책과 반대되는 일이라 각 지자체에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관련 예산도 없다”며 “금연구역이 아닌 길거리는 단속 권한이 없어 손 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광주지역 만 19세 이상 성인 흡연율은 19.7%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24.8도...캠퍼스의 봄
올 들어 최고기온(24.8도)을 기록한 14일, 광주시 북구 전남대학교 잔디밭에서 학생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봄기운을 느끼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호 실종자 5명 끝내 못 찾고... 완도 떠나는 가족들

위령제 열고 극락왕생 기원

해경, 수색 작업은 계속

근로호(완도 선적·7.93t) 전복사고 실종자 5명의 가족이 보름간 이어진 기다림을 마치고 현장수습본부가 꾸려진 완도를 떠난다.

14일 완도군에 따르면 근로호 실종자 가족 대표단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낚시배를 빌려 사고해역인 청산도 남쪽 약

6km 해상으로 떠났다. 가족들은 오후 1시께 완도해경부두로 돌아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천도 위령제를 열 예정이다.

실종자 수색과 사고 수습을 맡은 완도 해양경찰서는 전남 실종자 가족의 요청에 사고지점을 중심으로 16km가량 해역에 저인망어선 4척을 투입했다. 하지만, 실종자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가족들은 천도 위령제를 지내기로 뜻을 모았다. 가족들은 떠나지만, 실종자 5명을 찾

는 수색은 이어진다. 해군과 민간이 참여한 집중수색을 이날부터 해경 단독 수색으로 전환해 해상에서는 해경 합정 8척이, 해안에서는 경력 37명이 실종자 찾기를 지속한다.

연안통발어선 근로호는 지난달 27일 선장과 선원 등 7명을 태우고 완도항을 출항해 다음 날 오후 4시 28분 청산도 남쪽 약 6km 해상에서 뒤집힌 채 발견됐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회사 상조회비 수천만원 보이스포싱 사기

광주북부경찰 수사 나서

30대 여성 회사원이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던 회사 상조회비 수천만원을 전회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잃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1시20분께 회사원 A(여·38)씨는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포싱 조직원의 전화에 속아 83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송금했다.

A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으니, 입금된 돈을 긴급원 안전계좌로 옮겨야한다”는 보이스포싱 조직원의 꾀에 빠져 인터넷뱅킹을 이용

해 보이스포싱 조직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송금한 돈은 본인이 관리하던 회사 상조회비였다.

A씨는 “사건 처리 중이니, 주변에 알리지 말라”는 말에 속아 이날 밤 10시께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돈을 보낸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하는 한편,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자동차포장 로봇 팔에 맞아 근로자 숨져

14일 낮 12시35분께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고무제조공장 출하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하모(32)씨가 청소 도중 자동차포장 로봇 팔에 맞았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하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후 1시40분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하씨는 컨베이어벨트 등

을 청소하다 제품 자동 포장기기의 센서를 건드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베이어벨트 끝부분에 설치된 이 자동차포장기기는 제품(가로 30cm·세로 60cm·두께 30cm)이 센서에 감지되면 자동으로 집게로 집어 적재판(파렛트) 등으로 옮기는 크레인형상 로봇(높이 3m)이다.

경찰은 하씨가 머리를 숙여 작업을 하

다 자동으로 움직인 로봇 팔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번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입사 2년차 하씨는 6개월 전부터 출하장에서 제품 갯수 확인, 서류 작업 등을 했으며 이날 제품이 출하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해 청소 업무를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장관계자를 상대로 당시 자동차포장기기의 전원이 켜져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번개탄 연기 자욱한 차량 유리창 깨고

함평경찰, 자살 기도 남성 '극적 구조'

신고 받고 신속 출동

함평경찰서 읍내파출소 직원들이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기도한 30대 남성을 구조했다.

14일 함평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께 “자신의 종업원 전모(37)씨가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연락이 끊겼다”는 식당업주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함평 읍내파출소 서남열 경위와 최한나 순경은 해당 남성의 스마트폰 GPS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함평읍 석성리 인근을 수색했다. 서 경위 등은 돌마리해수욕장 인근 아산에서 연기로 가득찬 이반때

차량을 발견, 전씨가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것을 확인했다. 차량 내부에서는 타고 남은 번개탄과 소주병 등이 발견됐다.

서 경위는 잠겨 있는 차량 문을 열기 위해 유리창을 깨뜨렸다. 다행히 전씨는 맥박이 뛰고 있었다.

조사 결과 전씨는 사업으로 인한 채무와 이성 문제로 비관해 자살을 시도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경위는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생명을 잃을 뻔 했는데 신속하게 구조해 다행이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송선미 남편 살해범 15년 구형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 고모(44)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조모(29)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는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교사를 받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반기로운 대가도 포기한 채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고 송씨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조씨는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벌을 주는 대로 받겠다”고 선처를 호소. /연합뉴스

남원의 봄
대한민국을 예약하다

벚꽃로맨스 3. 31 ~ 4. 8 바래봉철쭉 4. 21 ~ 5. 20
춘향제 5. 18 ~ 5. 22 봉화산철쭉 4. 28 ~ 5. 27